3/8(월) 룻기 묵상 3

룻기 1:19-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부인 룻과 함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십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의 귀향은 지역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 아픔을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귀향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 유다지파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기 전에 살던 고향이었습니다(**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나오미의 귀향 소식에 베들레헴의 온 성읍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베들레헴 성읍이 소문이 퍼지기에 작은 마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가족이 나름 이름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21절에 있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발견합니다(**21절상,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풍족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에도 큰 화젯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금의환향은 커녕 집 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고 과부가 된 이방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온 빈털털이와 같은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 보였을 것입니다. 본래 나오미(Naomi)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희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다시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 것을 간청하고 '마라'로 불러 달라고 합니다. 마라(Mara)는 '괴로움', '쓰라림', '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출 15:23절에 나오는 마라의 지명도 그곳에 물이 써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처럼 희락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마라'의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회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징벌하다'와 '괴롭게 하다'는 원어적으로 볼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단어를 나오미가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그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의 풍족한 재산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뜻을 따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누가 봐도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처한 나오미에게

한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룻 1: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것은 젊은 자부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던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보통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여 그 다음 해 봄에 추수를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따라오게 된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는 '인생의 회초리와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우리를 향한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삼하 7:14-16,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즉 남유다 가운데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입니다(**벧후 3:15상,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신 그의 자녀가 그 분께로 모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벧후 3:9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전세계를 위한 기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기 침제로 인해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여러가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최빈곤층의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햄든 4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키르키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홍성빈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